

● 이재철 목사의 청년서신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참으로 신실하게



Gift Book

졸업, 입학, 취업, 도전과 선택..... 이 시대 청년들의 영혼을 북돋우는 축복의 선물!

장기 베스트셀러 두 권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와 《참으로 신실하게》가, 선물용 고급양장본 한 권으로 새로워졌습니다. 가격은 내려서 좋고, 품격은 높아져서 좋은 '업그레이드 Gift Book'!
* 졸업·입학·취업 시즌을 맞아, 앞날을 새롭게 결단하고 준비할 청년 세대를 위해 선물하세요!
*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대학교에 입학하는... 군대에 입대하는... 해외 연수나 유학을 떠나는... 대학교를 졸업하는... 사회 진출을 앞두고 있거나 준비중인, 자녀·제자·후배·조카들에게 선물하세요!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 줄 20가지 영적 가르침을 담고 있다. - 국민일보

《참으로 신실하게》는 기독교의 핵심인-말씀 믿음 구원 삶, 이 네 가지 가치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단단히 규명하고 있는 책이다. - YES24 편집자 추천평

이재철 지음 | 11.8x18.8cm | 양장 | 544면 | 13,000원 | 믿음의 글들 177-191 합본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청년·새내기들의 영혼을 힘있게 하는 책들

순전한 기독교
타인자가 극찬한 우리 시대 최고의 기독교 변증서!
"70세기 사극인들이 포이아바호의 《기독교의 본질》을 읽고 기독교에서 유물론으로 건너갔다면, 20세기 사극인들은 이 책을 읽고 다시 유물론에서 기독교로 건너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동아일보
*제16회 기독교문학대상 번역 최우수상(일반인 부문)
장영철·이종대 옮김 | 믿음의 글들 185 | 양장 | 352면 | 12,500원

세벽을 깨우리다
많은 이들이 가장 오랫동안 찾아 온 간증의 백미!
70년대 천재에서 도시 빈민들과 한몸이 되어 살았던 청년 김진홍(현 두레코의 대표이사)의 뜨거운 이야기가 복음과 삶의 역동적인 관계를 생생하게 보여 준다.
김진홍 지음 | 믿음의 글들 6 | 202면 | 16,000원

대천덕 자서전-개혁자의 길
'예수원 설립자 대천덕 신부의 자서전! 믿음의 모험에 뛰어들려고 권면하는 그의 고백과 더불어 함께 신뢰하는 사제가 생생한 감동을 더한다.
*제16회 기독교문학대상 최우수상(일반인 부문)
대천덕 지음 | 양혜원 옮김 | 믿음의 글들 167 | 양장 | 268면 | 18,800원

회복의 신앙
이섯 가지 주제로 풀어낸 참신앙의 핵심!
"중생"을 체험하기까지 신대이 크리스천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저자가, 참신앙의 본질을 깊은 주해와 생생한 예화로 풀어 주는 감동적인 책.
이재철 지음 | 믿음의 글들 171 | 272면 | 17,500원

나의 세계관 뒤집기
세계관의 대전환이 낳은 새로운 삶의 고백!
한국 라브리 총무 성인경 목사가 영국 라브리에서 영적인 가면을 벗어 던지고 균형잡힌 기독교적 세계관을 형성하기까지의 삶 이야기가 따뜻하고 감동적이다.
성인경 지음 | 믿음의 글들 161 | 272면 | 17,500원

이기적인 돼지, 라브리에 가다
- 젊은 세대와 초신자를 위한 세계관 입문서
프랜시스 쉐퍼 박사의 말 수장 쉐퍼클라리의 목록 뒤는 세계관 이야기!
"수장 맥클러리는 아버지의 사상을 이어받으면서도,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대답하는 데 성공했다." - Campus Life Magazine
수단 쉐퍼 클라리 지음 | 김종환·박진우 옮김 | 224면 | 17,000원

크리스천 새나기를 위한 대학생들 길잡이
대학생활에 대한 캠퍼스 현장 사역자들과 전문가들의 유익한 조언과 알짜 정보를 모든 대학생들 가까이!
"진짜들은 갖고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을 팔아서라도 사라는 우물들에게 이 책을 사 줄 필요가 있다." - 고척비/젊은이 선교장교연구회 대표
학원복합회협의회 엮음 | 176면 | 3,500원

동정서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책의 선물

121-885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7-9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2003년 3월



'기쁨'을 찾아 떠난 영혼의 순례 - C. S. 루이스 회심기

루이스의 한 살 때와 20대 청년 시절 사진, 직접 그린 일러스트 등 수록



예기치 못한 기쁨

C. S. 루이스 지음 | 강유나 옮김 | 13.4x20.2cm | 양장 | 352면 | 13,000원

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독하게 주관적이라는 점이 걱정된다. 나는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써 본 적이 없고 아마 앞으로도 쓸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금세 알아보고 시간 낭비 없이 책장을 덮어 버릴 수 있도록 첫 장을 쓰고자 애썼음을 밝혀 둔다. -머리말에서

이 책을 읽다 보면, C. S. 루이스와 관련한 몇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눈길을 끈다. 우선, 그가 어린 시절 이사한 새집 '리블 러'에서 형 와니(Warren Lewis)와 뛰놀며 수많은 책다마에 파묻혀 지낸 이야기, 동화를 직접 쓰고 삽화를 그렸다는 이야기, 아버지에 관한 추억 등은 인상적이다.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읽다 보면, 특신이었을 때에 그가 어떻게 해서 위대한 환상동화 《나니아 나라 이야기》를 쓸 수 있었다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책 《예기치 못한 기쁨》에 관해 언론은 이렇게 찬사를 보냈다. "그의 감출한 재능은 명쾌함이다. 당신은 그것이 두 가지 수준, 곧 진술한 자서전과 일종의 품격 높은 스티븐슨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사벨 퀴클러/선데이 타임스 Sunday Times "회심(해)의 심리학에 대해 연구하려는 모든 사람이려고는 생각지 않는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자서적이던 어린 시절 부분이 가장 재미있는 범

통합되는 작품임을 발견하고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또한 재미있는 책을 찾다가 우연히 이 책을 접어든 독자라면,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도 동일한 가치가 있는 작품임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채드 윌쉬/새터데이 리뷰 Saturday Review

*이 책의 주요 차례
어린 시절/강제수용소/빛과 그림자/위대한 노크 선상님/운명의 미소/체코/무기와 전우/체코메이트/시작

*C.S. 루이스
아일랜드 벨파스트 태생으로, 영국 옥스퍼드 모들린 칼리지와 케임브리지에서 중세와 르네상스 영문학을 가르쳤다. "20세기 복음주의계의 어거스틴"(제임스 패커) 또는 "20세기의 존 버니언"(헨리 듀리스/미국의VP 편집자)으로 불리며,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사상가"(Time)요 "지난 40년 동안 미국 복음주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저술가"(Christianity Today)로 평가받은 정도도 현대 기독교 지성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순전한 기독교》는 크리스체너티 투데이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책 10권' 중 1위에 꼽혔으며 《제자의 대가》, 3부 《교회 고백의》, 퍼블리셔스 위클리 종교도서 부문에서 장기간 베스트셀러에 올라 있다.

지면안내

도전 인터뷰 2
엔도 슈사쿠 (칭목) 이재철 (이재철 목사의 청년서신)

신간 깊이 읽기 3
1. 새기를 위한 전도자 조지 워드필드 2.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3. 리빙 갓 4. 청년·새내기들의 영혼을 힘있게 하는 책들

나는 이렇게 읽었다

책목
엔도 슈사쿠 지음/공문석 옮김/양장본·보급판(11,000원·6,800원) *개정증보판

"책에는 세 종류가 있다. 흥미거리로 읽고 지나가게 하는 책,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주는 책, 그리고 그 책을 읽고 나면 생각을 깊게 하고 지혜를 주는 책. 엔도 슈사쿠가 쓴 《침묵》은 세번째에 해당하는 책이다. 나는 《침묵》을 세 번이나 연거푸 읽고 나서 나 자신의 신앙을 깊이 되살펴 보았다. 《침묵》은 누구든지 꼭 읽어 아할 책이다." -김진홍 목사/구리 두레코회

리빙 갓
앤드루 클리프 지음/김지용 옮김/양장본/12,000원 *개정증보판

"나는 UCI.A에서 공부할 때 이 책을 처음 읽었다. 하나님에 대해, 아버지와 아들 관계임을 정말로 개인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할 때였다. 이 책(리빙 갓)은 내 삶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도와 주었다. 이 책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아주 훌륭한 안내자이다." -패럴림 김/CTS 바이블 임플리쉬 진행자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강희재 지음/248면/7,800원

"이 책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저자 자신의 삶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피아노 치는 것과 공부밖에 모르던 그가 부가직 머니셔로 겪은 마음 고생, 생애의 뒤편 분노로 어느 날 문득 가슴에 단 날 하나, 순종하며 남편의 규율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맞은 남편의 죽음과 하나님의 위로, 그때부터 시작한 큐티신교회, 삶의 굴곡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한결 스스르우면서 도 도인이 되어 삶에 대한 용기가 생긴다." -김성환/전(생명의 삶) 편집자

정본 C.S. 루이스 클래식

"정본 C. S. 루이스 클래식"은 영국 C. S. 루이스 형제(C. S. Lewis Company)와 정식 저작권 계약을 맺은 흥성사에서 공들인 원역과, 세심한 편집으로 삼엄을 기울여 펴내는 시리즈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인간 심리와 영성에 관한 경이로운 통찰. "독학하고 쓰기 넘쳐, 도전적이고, 도발적인 책"-옵서버(The Observer) 김성현 옮김 | 믿음의 글들 176 | 202면 | 양장 | 8,000원

고통의 문제
고통이 제기하는 의문에 대한, 명징하고 강인한 신학적 답변. "한 권의 책을 아무 거리낌 없이 칭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다.(고통의 문제)가 바로 그 책이다"-가디언 Guardian 이종대 옮김 | 믿음의 글들 189 | 248면 | 양장 | 9,000원

순전한 기독교
타인자가 극찬한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독교 변증서를 가운데 기독교 신앙의 합리성과 도덕성을 명료하고도 지성적인 필치로 변한 가장 뛰어난 책"-일라스트 에라스무스 *제16회 한국기독교문학대상 번역 최우수상(일반인 부문), 퍼블리셔스 위클리 장가 베스트셀러 장영철·이종대 옮김 | 믿음의 글들 185 | 352면 | 양장 | 12,500원

A Grief Observed
루이스의 심적(심)이라 불리는 흥미진진한 책. 지옥 언저리에 사는 혼령들이 천국의 언저리로 소용돌이 치는 어느 시점에서, 그곳의 천사의 성도들이 나누는 여의 대화를 통해 삶과 신앙의 본질 등을 펼쳐지 함적으로 보여 준다. 김성환 옮김 *2003년 하반기 주간 예경

The Great Divorce
20세기판 《신곡》이라 불리는 흥미진진한 책. 지옥 언저리에 사는 혼령들이 천국의 언저리로 소용돌이 치는 어느 시점에서, 그곳의 천사의 성도들이 나누는 여의 대화를 통해 삶과 신앙의 본질 등을 펼쳐지 함적으로 보여 준다. 김성환 옮김 *2003년 상반기 주간 예경

예기치 못한 기쁨
탁월한 번역으로 되살아난, C. S. 루이스의 영적 자서전. "그의 감출한 재능은 명쾌함이다. 당신은 그것이 두 가지 수준, 곧 진술한 자서전과 일종의 품격 높은 스티븐슨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선데이 타임스 Sunday Times
강유나 옮김 | 양장 | 352면 | 13,000원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동정서

도전 인터뷰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나누어 지시는 분입니다”



(침묵) 저자 엔도 슈사쿠

《침묵》은 17세기 일본의 기독교인 박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소설로서, 1982년 처음 우리말로 소개된 이래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 왔다. 한국어판 출간 20주년을 기념하여 저자 엔도 슈사쿠를 기상으로 만나 보았다.

《침묵》은 ‘엔도 슈사쿠 최대 야심작’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 《침묵》을 쓰게 되신 배경은?
제가 1960년 말에서 1962년 여름까지 꽤 오랫동안 투병생활을 했는데, 투병 중에 나가사키에서 성화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도 시대에 그리스도교를 금하고 신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마부가 고안해 낸 것으로서 성모 마리아상이나 예수 십자가상 등을 동판이나 목판에 새겨별로 밟게 했지요. 제가 본 성화판에도 거무스름한 발자국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그 성화판을 밟은 사람들의 모습이 제 안에서 살아났습니다. 그 후 1965년 1월부터 침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한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 그리스도교가 전래된 것은 1549년 8월, 자비에트를 비롯한 여섯 명의 신부가 가고시마에 도착하면서입니다. 그 후 그리스도인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1590년대에 이르러서는 무려 전체 인구의 1.3퍼센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요. 하지만 히데요시 시대의 불교정책과 맞물려 기독교 박해가 심화되었고, 1614년에는 그리스도교 대박해령이 전국적으로 선포되어 외국인 선교사 400여 명이 마카오와 마닐라로 추방되었습니다. 이후 영주들의 학정과 그리스도교 박해의 결과로 대만만이 남아있었는데, 이것이 ‘시마바라 난’(島原の亂)입니다. 시마바라 난

이후 왜국령이 내려져 네덜란드인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을 금하고 1641년에는 네덜란드인이 지나가거나 메지마로 이주시켜 막부의 감시를 받게 했는데, 침묵은 시마바라 난 진압 이후인 1637년부터 1644년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창작인지요?
이 작품은 역사소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다루고 있는 사건도 대부분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로드리고는 요세베 켈러라는 실존인물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로드리고의 일본 이름 오카다 신이몬(岡田右衛門은 요세베 켈러의 일본 이름 오카모토 산에몬(岡本三左衛門)에서 따 왔지요. 요세베 켈러는 이노우에 지쿠노고가미의 고문과 ‘구명 매달기’ 형벌을 받고 파교한 다음, 일본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노우에가 살던 저택에서 생활하다가 1685년 84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나가사키 메지마 네덜란드 상사원 요나센의 일기’도 역사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작품은 소설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

습니다.
성경이 그렇듯이 제 작품에도 비평가, 잡쟁이, 배신자로 그려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네요. 예수를 팔아 버린 유다는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배신

자였습니다. 침묵에 나오는 기지기로 그랬고, 결국 로드리고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은총 없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존재의 결핍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 아닐까요.

거의 모든 작품에서 종교적 문제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 혹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탐구해 가며 인간 영혼과 육신의 싸움과 갈등을 주제로 작품을 써 왔습니다. 제가 교백하는 예수는 ‘동반자 예수’입니다. 율법이나 교화에 갇혀 있는 예수, 서양 풍토에나 맞는 예수가 아닌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싶어하시고 우리와 함께 놀고 싶어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병자나 세리나 창녀에게 한없는 사랑을 보여 주시며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 지시는 분이요, 이현주/홍성사 편집장 대리

*참고한 자료들: 황필호, 《엔도 슈사쿠의 종교 소설 읽기》, 신원출판사, 2002; 민세인, 《엔도 슈사쿠의 《침묵》에 나타난 “고풍”과 “구원”》,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6; 김희자, 《엔도 슈사쿠의 《침묵》에 있어서의 신과 인간의 문제》,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2.

성경이 그렇듯이 제 작품에도 비평가, 잡쟁이, 배신자로 그려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네요. 예수를 팔아 버린 유다는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배신

도전 인터뷰

집회를 접으며 집회를 접으며 집회를 접으며



(이재철 목사의 청년서신) 저자 이재철

2001년 9월 하순 제네바에서 귀국하면서, 매달 국내외의 1쇄부터 집회에 응하고 나머지 일간엔 책을 쓸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입장에서 여러 곳의 요청을 마구 거절만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즉, 2004년 말까지만 일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회 요청에 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한다면 결국 직업 부흥사가 되는 셈인데, 그것은 재계기야말로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이 끝날 9월부터 100여 일 동안만도 국내에서 33회나 크고 작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집에서 잠을 잔 날은 겨우 20여 일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한 달간은 불과 4주 동안 무려

여섯 차례나 출국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강행군을 하고서도, “우리 교회는 작다고 오지 않는 거냐?” ‘우리 지점, 방을 이렇게 꾸며야 할까?’ ‘○○○ 목사도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계획을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즉, 2004년 말까지만 일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집회 요청에 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한다면 결국 직업 부흥사가 되는 셈인데, 그것은 재계기야말로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름이 끝날 9월부터 100여 일 동안만도 국내에서 33회나 크고 작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집에서 잠을 잔 날은 겨우 20여 일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한 달간은 불과 4주 동안 무려

습니다. 무리한 일정에 제 건강이 여의치 않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2002년 초에 수술 받은 왼쪽 무릎은, 중반만 회복의 여유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거의 매일 장시간 강단에 서다 보니 여러 모양으로 편지가 많았습니다. 결국 상당 기간 안식을 요하고 특히 장거리 비행은 금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권유에 따라, 부득불 급근 말로 집회 사역을 접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와 관련된 분들의 깊은 이해를 구함과 아울러, 2003년에는 저 자신의 정진을 위해 더욱 힘을 쓸 것을 스스로 다짐해 봅니다.

*이 글은 홍성사 도서회원 소식지 《영희화》 2002년 12월호에 실린 것으로, 인터뷰를 대신하여 게재합니다.

침묵 (Silence) book advertisement with cover image and pricing information.

박영콜의 사랑 (Love of Park Young-kol) book advertisement with cover image and pricing information.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Daily Devotional for Women) book advertisement with cover image and pricing information.

큐티를 정복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노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큐티의 진짜 맛을 알아내지 못하고 포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큐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이나 모델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는 큐티로 가는 길을 선명하게 합니다. 누구에게도 큐티를 소개한다면 저는 이 책을 먼저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 강연과 세미나, 책들이 많지만 이 책이 감동을 주는 이유는 저자 김영재 강도사 자신의 삶이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파노는 치는 것과 공부밖에 모르면 그가 부딪힌 매너로 겪은 마음고생, 쌓이고 쌓인 분노도 어느 날 문득 거칠게 만난 하나님, 순종하며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던 중에 맞은 남편의 죽음과 하나님의 위로, 그때부터 시작한 큐티 선교회, 삶의 굴곡을 통해 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살아온 이야기를 읽다 보면 한편 안쓰러우면서도 도전이 되어 삶에 대한 새로운 용기가 생깁니다. 또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는 큐티에 대한 자신감을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 하나로 시작하기에 그의 큐티는 보다 쉽고 단순하게 시작합니다. 더불어 그동안 10년 넘게 큐티를 하면서 쌓인 깊은 풍부한 경험으로 큐티의 노하우를 보여 줍니다. 큐티의 순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요령,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삶으로 적용하고 기도제목으로 삼는 방법까지,

그래서 큐티가 어려워서 포기했거나 고요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다시 한번 해 보자” 하는 마음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자신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거창한 것을 찾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대부분 자기구제만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순종하기 싫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실린 큐티를 적용한 사례는 과연 어떤 부분까지 큐티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해, 부부생활에 대해, 세상 부귀와 권력에 대한 집착에 대해, 큐티의 적용은 한계가 없습니다. 집안에서 허드렛일로 세월을 보낸다고 생각하는 아줌마, 세상에서 잘 나간다고 생각하는 교양인, 탄 때는 물라도 교회에서는 인정받으려는 집사님, 어느 누구, 어떤 사건과 생각, 마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는 보여 줍니다. 삶에 지친 사람, 갈바를 몰라 헤매는 사람, 특히 말씀으로 인생의 답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읽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이자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재/전(생명의 삶) 편집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보여 주는 필독서” (How to Love God) book advertisement with cover image and pricing information.

세기를 뒤흔든 전도자 조지 화이트필드 (The Great Awakenings) book advertisement with cover image and pricing information.

“18세기에 활약한 영적인 선각자들 가운데 화이트필드만큼 진취적으로 복음 증거하는 위대한 사역에 앞장선 사람은 없었다. 따라서 내가 화이트필드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거론한다면 그것은 부당한 일일 수밖에 없다.”
-J. C. 라일 John C. Ryle
“주님께서 화이트필드 목사를 통해 참으로 많은 영혼을 기꺼이 구원하셨다. 지금까지 그의 설교가 열매를 맺지 못한 적은 없는 듯하다. 그의 발이 닿았던 광범위한 사역지 대부분에서 우리는 화이트필드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인정하며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존 뉴튼 John Newton

세우신 사람들 가운데 조지 화이트필드는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사도의 권위를 갖춘 진정한 복음주의 설교자였습니다. 그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운 그 자체였고 영국과 미국을 오가며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초인적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J. C. 라일 John C. Ryle
“주님께서 화이트필드 목사를 통해 참으로 많은 영혼을 기꺼이 구원하셨다. 지금까지 그의 설교가 열매를 맺지 못한 적은 없는 듯하다. 그의 발이 닿았던 광범위한 사역지 대부분에서 우리는 화이트필드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인정하며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존 뉴튼 John Newton

How to Love God book advertisement with cover image and pricing information.

세기를 뒤흔든 전도자 조지 화이트필드 (The Great Awakenings) book advertisement with cover image and pricing information.